

중등2부
떡볶이 잔치

“작은 섬김이 이토록 많은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다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늘 우리 교사들의 고민이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정신여중 졸업고사가 끝나는 날 떡볶이 잔치를하기로 했다. 날씨가 추우면 어쩌나? 비가 오면 어쩌나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건 단지 우리들의 기우였다. 11월 13일 9시에 지하식당에 모인 우리 중등2부 아줌마 선생님들.. 오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으로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불란하게 각자 일을 찾아 너무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놀라웠다.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께 중보기도 하시라는 전도사님의 문자 또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역시 한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물을 끓이고 소스를 풀고 떡을 떼며 젓는 손길, 그릇을 지하식당에서 1층 로비로 옮기고 아이들이 좀 더 아늑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로비를 꾸미시는 선생님들, 전도지를 나눠 주시며 우리의 바쁜 손길을 도우시던 교육지원부권사님들, 아이들을 격려하며 사진 찍어주셨던 정요섭 목사님...모두의 모습이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예쁘고 감사했다. 이런

작은 섬김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졸업고사 보느라 수고 했어요”라는 한마디에 감동하는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온다. 설거지를 끝내고 둘러앉은 선생님들은 내년에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자고 하신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행복해하며 환하게 웃으셨다.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 하시며 고민 하시는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하길 기도한다.

이미경 집사(7-19, 중등2부 교사)



“저도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교회 가족 해병대 방문 위로



살롬성가대와 군부대교회사역팀은 지난 주일 해병대 사령부 중앙교회를 위로 방문했다. 해병대 중앙교회는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군교회로서 군인가족과 해병대 장병들이 예배를 드리는 아담한 교회이다.

이날 위문에는 청년부 10명의 위십팀이 열정에 넘치는 울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동훈 집사님의 사회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살롬중창대회 대상팀이 ‘그의 빛

안에 살면’ 합창을 시작으로 영살로팀, 이주희 자매, 박준열 형제의 공연이 이어졌고, 전 대원이 단상을 꽉 채우는 합창으로 ‘동무생각’ ‘거룩한 주’ 등을 열창했다. 특히 ‘팔각모사나이’라는 군가를 서정적으로 부를 때는 애절한 분위기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게 했다.

예배를 여는 기도에서 김도묵 장로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군복무를 기피하는 이 시대에 자원하여 입대한 젊은이들이 손가락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귀가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박원호 담임목사도 축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셨듯이 저도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다”며 “이곳을 기억하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태원 기자

호스피스
아외기도회

“사용하지 않는 물리치료기 있나요?”



호스피스팀 가을아외기도회는 가평 루디아의 집에서 11월5일 (월)에 열렸다. 루디아의 집은 적은 수의 1~2급 중증 장애인이 요양 중이나 재정에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호스피스팀은 11월 추수 감사의 달을 맞아 찬조 받

은 물품과 기부금으로 구입한 물리치료기를 선물하였다. 아무것도 없었던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가 설치되니 마음의 풍족함을 느꼈다. 만족할 만큼 많은 종류의 물리치료기는 아니었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하니 참석한 팀원들은 작은 정성이 우리가 모르던 곳에 큰 힘이 되었다는 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할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신형섭 기자

물리치료기
수집합니다

호스피스사역팀에서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리치료기를 수집한다. 구형물리치료기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니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 한다.

※문의: 신형섭 안수집사 (019-628-7957)

캄보디아 치과 의사 연수프로그램

“한국을 배우기에는 3개월은 너무 짧아요!”



CHOU Mean Serey 선생

교육은 의료선교부 특히 치과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썰라이선생은 주중 우리교회 교우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돌면서 선진치과 기술을 익혔고 주일에는 주님의교회를 주로 나오면서 한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

다. 또한 의료선교부원들과 같이 1달에 두 차례 하남 외국인센터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진료봉사에도 참여했다. 특히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 추석명절에는 한국전통문화를 익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한국문화를 배우기도 했다.

그 동안 썰라이선생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떠올려 본다. 어려운 여건에도 치과 방문을 허락하여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치과 의사 분들과 스태프들, 특히 청아치과병원에 감사를 드린다. 숙소준비와 도착 안내를 도왔던 손길들, 여권과 항공권의 수속을 도와준 형제자매들, 한국어 교육으로 썰라이선생님께 도움을 준 분들, 교통카드 등 일용품들을 공급하며,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도우미와 관광가이드로, 또 식사대접으로 섬

겨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었다.

캄보디아 법조, 행정, 의료, 교육 등 각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며 기독교 공동체(Christian Community)를 섬기는 것에 뜻을 가진 썰라이선생! 그는 학생 때부터 우리교회 의료선교팀과 캄보디아에서 같이 진료봉사를 한 형제로 현재 프놈펜에서 공동개원을 하고 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기다리기에는 3개월은 너무 길지만, 한국을 배우기에는 3개월은 너무 짧아요!” 그 해맑은 웃음과 함께 귀국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캄보디아에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며 소망한다.

변준석 집사(4-10, 의료선교부 치과팀장)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
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
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46:1-3

통 권 _ 제 218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1월 18일

함즐함울

www.pcltv.org

평소 무심코 지나쳐왔던 교회 옆 아시아공원에는 단풍이 한창이다.



추 수 감 사 메 시 지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되길..



박원호 목사

믿음의 선조들이 첫 수확으로 정성스레 하나님께
예배한 추수감사절이 올해도 다가왔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감사절인 만큼 저로
서는 어떻게 감사해야할지 모를 만큼 벅찬 감격함으
로 맞게 되는 감사절입니다. 지난 8년 여간 이민 교회
에서 목회하도록 하시면서, 이모저모 섬세하게 저를
목회자로 빚어주셨습니다. 신학교의 사역을 통해 신
학적인 터전을 마련케 하시고, 가르침의 사역을 마무
리하게 하신 뒤에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지로 나서는
저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면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목회 현장에 발을 내
딛는 순간부터, 두려움의 강물들을 말씀으로 하나 둘
건너게 하셨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새벽 기도 설교는 이러
게 해야 하고, 수요 설교는 이렇게, 주일 설교는 이러
게 해야 한다."

"성경공부는 다시금 체계를 세워서 온 성도들이 참
여하도록 해라."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야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는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현재에 충

실하지만 결코 미래를 위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온 마음을 양 떼에 두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

"결코 자신의 이익을 우선에 두지 말며, 늘 배우기
를 힘쓰고, 주님을 닮기를 힘쓰라."

"아울러, 그 어떤 사역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 되는 것이 소중함을 명심해라."

일일이 일러주신 말씀들입니다.

저의 삶을 오늘 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올해 이곳
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제가 못한 것을 뻔히 아시면
서, 저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제
가 부족한 것을 뻔히 아시면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지명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사
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주일, 온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로 드러
지는 이 예배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
의 사명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이 풍성히 임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합니다.

2007년 느지막한 가을, 담임목사 박원호 드림

교 회 소 식

미술인선교회전시회 "가을의 꿈"



- 날짜: 11.18~25(8일간)
- 시간: 8:50~16:00(주일) 10:00~16:00(평일)
- 장소: 지하 작은 식당

30CUP 찬양예배



"40일간의 기도" 마태복음4:1-11

- 일시: 오늘 오후 3. 30
- 장소: 대예배실

2007 새교사대학(불가사리)



〈강의내용〉교육행정-정요섭 목사
교사의 기도훈련-주선영 전도사

- 장소: 지하 중예배실 ● 시간: 3:00~5:00(pm)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행복한 구역모임_4-17	3면
농어촌교회 방문기	3면
중등부 떡볶이 잔치	4면



왜 신앙은 자라야 합니까?

시 103:1-5, 막 11: 12-14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권세는 사라지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 섬김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어린이가 막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왜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왜 밥을 먹어야 해?’, ‘왜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워?’ 등등...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들이 살아있고 성장한다는 것을 증거 합니다. 만약 어른들이 ‘왜?’를 무시해버리면 아이들의 성장에는 큰 지장이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 역시 질문하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이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께 묻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의 시작이(삿1:1) 그러하고 다윗의 삶이 그러합니다(대상14:10).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본문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나?’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심은 무화과나무의 씨는 땅에서 싹이 나고 잎이 생겨야 합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워야 하고 그 꽃들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가 나무는 그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잎이 피었다가 떨어진 뒤에 곧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 비슷한 것이 맺힌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때는 무화과는 잎은 떨어지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계속해서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이런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수염 난 할아버지고 삭개오는 평생 뽕나무 위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가 되면서 하나님은 수퍼맨이 되십니다. 비로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자기 정체성은 물론 성경의 전체 흐름이나 신·구약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의존적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면서 신앙에 큰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요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마치 아무런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장년은 어떻습니까? 마치 더운 여름 후에 가을이 다가오듯 신앙에도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혈기가 많던 내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알게 되고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을 때문에 인격과 사고방식의 성숙도가져오고 자신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되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노년의 시기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비로소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성한 잎, 화려한 꽃, 풍성한 열매는 없지만 자신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신앙은 변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만도 못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주위 사람들도 어렵게 만듭니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성전정화사건은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뒤에는 성전정화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엮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사건이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무화과의 저주건은 단순히 배가 고프신 주님께서 일으킨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청소사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은 그 다음에 있을 성전청소사건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눈앞에 펼쳐진 성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처에 돈을 바꾸라고, 비둘기를 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바로 잎사귀만 자랑하던 무화과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시듯이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때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왜 주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들도 저주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던 그 신앙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주 받은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바디매오 사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사건들 앞에는 청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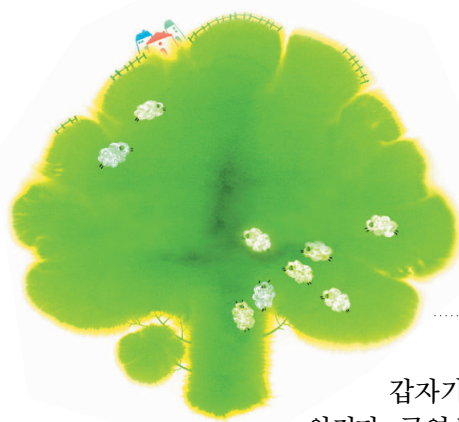
를 가진 거지 바디매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무화과 사건 뒤에 성전청소사건이 나오고, 왜 성전정화사건 앞에 무화과 사건이 나오니까? 바디매오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디매오가 길가에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를 내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산을 옮긴 것입니다. 바디매오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바디매오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주님과와의 관계이지 직책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외형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인간의 모든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찬송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고통지르며 겉옷을 던지며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바디매오는 믿음으로 눈을 뗐습니다. 눈을 뗀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권세는 사라지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 섬김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훈련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 훈련을 위해, 여러분의 예배 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교회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이 자라도록 힘써야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위한 지침 (Howard Snyder)

-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을 찾으라!
- 꾸준히 영적 일기를 쓰라!
-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라!
- 영적 훈련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활용하라!
- 정기적으로 온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라!



행복한
구역모임

4교구 17구역이란 이름으로 떠난 테마여행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떼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구역식구들과 봉평허브농장-경포대-대관령 양떼목장으로 설레이는 기분을 가지고 테마여행을 떠났다. 차안에서 각자 준비한 먹거리를 펼쳐 놓고 우린 어린아이들이 되었다. 구역이란 이름으로 4불문(성별, 나이, 지위, 가치관)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은 형제이며 오누이며 자매였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감사하며 어린 아이처럼 떠돌고 웃고 하는 사이에 첫 번째 목적지인 허브농장에 도착해서 계절이 준 황량하고 쓸쓸한 농장을 구경하면서도 우린 그곳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 가이드의 성화속에 온실속 허브의 향기를 뒤로 한 채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돌렸다. 점심엔 시퍼런 바다가 노래하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육의 양식을 먹으며 우린 너무 행복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도와 찬양이며 간증이었다.

다음 목적지인 대관령 양떼목장을 찾은 우리는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고지를 향해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전진 했다. 그곳에서 만난 양떼들은



우리들이었고 양떼의 목자는 주님이셨다. 대장을 뒤따라가는 양떼들을 보며 우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모두들 피곤했지만 이런 시간과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에 이런 자리를 또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집사님의 말을 뒤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백경애 권사(4-17)

〈농어촌교회 방문후기〉

어려운 교인들을 걱정하시는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교회 선교본부 농어촌교회 사역팀에서는 미자립 농어촌교회 34개교회(2007년 10월현재)를 재정지원(월200,000원/2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번 하반기는 11월9일부터 2박3일 동안 경남 합천에 목양교회, 평지교회, 의령에 입산교회, 지정교회, 전남 나주에 뽕엘교회, 장성에 화산교회까지 총 6개 교회를 방문했다.

농촌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한 편으로는 가슴 아픈 우리 신앙인의 이야기였다.

목양교회 임관국 목사는 10년이 넘게 열심히 사역하여 출석교인이 25명 정도 되어 자립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고 기뻐했으나, 2년 전에 바로 옆으로 대형교회가 이전하면서 지금은 교인이 3명만 남아 허탈해 했다. 하지만 교회학교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있어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역한다고 한다.

평지교회 정중수 목사는 농촌교회는 대부분 7-80

대 노인이 많아 교회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가정에 찾아가 일일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11월 11일 주일에는 장성에 있는 화산교회에서는 주일예배 시간에 농어촌사역팀원의 특송을 드린 후 교인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도시 대형교회에서 농어촌선교와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하지만 지금의 농어촌 교회의 현실은 선교를 할 대상인 인적자원이 없어 대부분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농어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자들은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도시교회의 기대에, 이제는 인식을 달리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농어촌교회의 사명은 소외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라 했다.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생명이라도 찾아서 죽기 전 구원시키는 사역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했다. 기초 생활비조차도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필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걱정하시는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농어촌 교회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해본다.

2박3일의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보며 농어촌 교회 선교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 교회와 그곳에서 사역하는 교역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성득 안수집사(7-18)

로 메모리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마27:32)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막15:21)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롬16:13)

그는 그냥 서있다가 영접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른척 하지 않으셨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그를 기억하고 기억하셨다.

힘들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가는 이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감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때, 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시몬을 생각하고 싶다.
아주 짧은 시간 십자가를 진 그 일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억지로 가고 있는 나의 등을 두드리시며
그래도 수고했다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다.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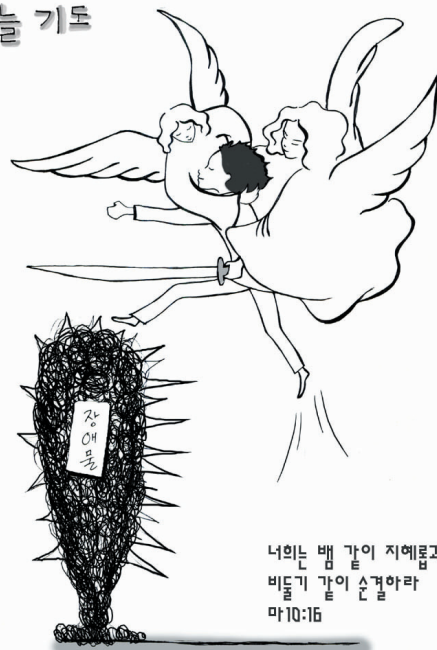
제가 무엇이기에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나이까. 제게 베푸시는 당신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오늘 기도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10:16